

술의 피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 6 회>



韓 文 奎

알콜 의존증

알코홀의존에 의한 정신질환

알코홀의존의 결과로서 여러가지 병명이 있으나, 전문용어는 피하고, 알기 쉬운 것으로 진망증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던가, 얘기 도중 생각이 이어지지 않아,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알코홀치매(痴呆: 친치 또는 백치)는, 처음엔 도덕적인 결함이나 미취(美醜)의 감각이 없어져, 점점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증상이 심하게 됩니다.

알코홀질투망상(妄想)은, 주로 배우자에 대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던가, 누구와 이상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 그 때문에 폭행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판단력이나 비판력이 감소되며, 성적(性的) 불능증 등의 열등감

때문에 남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술을 끊으면 자연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알코홀의존에 의한 신체장해

첫째로 내장장해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간염으로, 이것을 직접적인 현상이라 하고, 간접적 현상으로는 간경변(肝硬變), 지방간, 췌염(膵炎) 등이 있습니다.

둘째, 진단시의 신체조건으로 가장 직접적인 증상은, 앞에 얘기한 금단증세이지만, 간접적인 증상으로서, 술냄새가 나는 것, 얼굴이 빨갛게 된 것, 모세혈관의 확장, 손 떨림 등이 있습니다.

셋째, 임상검사로써 확실한 소견은 알코홀의 혈중농도가 100cc가운데 100미리그램 이상이며, 호흡검사로 1리터 가운데 0.5미리그램 이상이면, 술

을 마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외에 대사장해(代謝障害), 간기능장해, 취장장해, 빈혈같은 혈액장해 등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체의존은 되었더라도 정신의존은 대단치 않은 경우도 있고 급성중독증상과 의존증상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술을 계속 마셨는지 믿을만한 사람에게 듣지 않으면 안된다. 본인의 얘기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음주행동

중래부터 급성알코올명정(酩酊: 취하는 것)을 보통 명정과 이상 명정으로 나누어 연구해 왔읍니다.

알코올이 신경계에 끼치는 영향에는, 첫째, 지각(知覺)장해, 둘째, 운동장해. 셋째, 정신기능장해가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cc중 60 미리그램에서 100미리그램이 되면 약 반, 100~125미리그램이 되면 85%가 시력장해를 일으키며, 청각이나 통감(痛感)도 둔해진다. 운동기능에서는 특히 평형감각이 둔해져 걸을 때 비틀거린다. 혀가 꼬부라지고, 손이 떨리는 것 등은 50~100미리그램에서 생겼다. 150그램미리이 되면 줄어 든다고 합니다.

정신 기능면에서는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약해지고, 다행감, 공격성, 감정불안정이 된다. 혈중농도가 300 미리그램이 되면 혼수상태가 되고, 400~500미리그램 이상에서는 호흡 마비로 사망합니다.

이상명정의 제 1 형은 음주 후에도 공격 행위나 성적폭력행위가 계속되

는데, 그것은 술을 안마셨을 때의 본인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 또한 그런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이 어느정도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뒤에 어느정도 기억하던가, 잘못 기억하던가, 전연 기억 못하는 때도 있다.

이상명정의 제 2 형은 소량의 알코올에 의해 일어나는 특이체질반응(特異體質反應)을 말하는 것으로, 과잉음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안전한 사람이 소량의 음주로 공격적이 되어 폭행을 하는, 즉 급격한 인격변화를 말합니다.

알코올 관련장해

그 외에 음주에 따른 이상 행동 가운데, 알코올의존에 기반을 둔 것과,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의존에 의한 이상행동으로서는, 술을 계속 마시면 간경변이나 위궤양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고, 형사문제까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술을 마시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말로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아무리 해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욕망에 저 다시 술을 마시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은, 술을 마시고→취하고→자고→깨고→술을 마시고 하는 것을 반복해, 눈이 떠져 있는 한 술을 마셔서, 그 외의 일상행동은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하며 끊으려 하지만, 다시 마시고 맙니다.

〈필자=醫事평론가〉